

# 도자기에서 만난 옛 도공의 숨결

도자기는 과거로의 여행통로... 수많은 도공들과 끈끈한 연정 느껴

**미**국에서의 대학생활이 외롭고 답답하면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의 중앙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백 년이 넘은 웅장한 건물의 대리석 층계를 오르내려야 했는데, 그 층계를 통과할 때마다 나는 그 옛날 어느 도공의 세계로 들어가곤 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나의 도자기에 대한 분석연구는 그 시절의 경험에 밀바탕이 되었다. 일상생활의 이런 저런 짜증나는 일들과 물질만능시대의 가치관이 나를 혼돈스럽게 만들 때, 100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내버려진 도편(도자기 조각)들은 삶의 인식처와 배움의 터로 나에게 다가온다. 자연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흙과 물을 인간의 상상력과 손재주로 만들어 낸 역사는 인류의 탄생 이후 끊임없이 발달하였다. 적합한 원료를 찾아서 조합하고, 1100°C 이상의 불꽃을 조절하여 고려 상감청자의 명품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실패가 밀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전국 곳곳 물 좋고 경치 좋은 산기슭에서는 버려진 도편들과 불에 달구어진 흙덩어리들이 종종 발견된다. 세계적인 명품들과 이 언덕의 조각들 사이에 놓인 이름 없는 수많은 도공들의 희로애락을 상상하면, 나

는 그들과의 공동됨에 끈끈한 연정을 느끼곤 한다.

나는 세계 곳곳의 중앙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흑석동 실험실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성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에 포착되는 태도와 유약의 미세구조에서 그것들의 제작 과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박사학위 과정에서 나는 암모니아 브로마이드 단결정에 초음파를 전파시키고 그 속도의 변화와 에너지가 감소하는 정도에서 상태변화에 대한 물리화학적 정보를 유출해내는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그 과정은 나에게 과학적 방법과 태도를 길러 주었지만, 도자기 분석 연구와는 거리가 너무도 멀었다. 그 뒤 강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초음파 연구와 전통기술에 대한 화학적 근거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싶은 생각에 자꾸 빠져들었다. 그리고 필요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기 위하여 한국의 전통화학기술에 대한 도서분류표를 만들었다. 수집한 각각의 문헌을 이 분류표에 의하여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로 입력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의 용량이 적고 사용할 수 있는 한문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나의 도자기 연구 과정에는 많은 선배 학자와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 가운데 영국에서의 일은 잊을 수 없다.

## 영국에서 우연히 발견한 '도자기 논문'

약 15년 전, 캠브리지대학의 한 학회에 참석하는 남편을 따라서 가족과 함께 2주 정도 영국을 여행한 적이 있다. 여행 도중 나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런던의 대영박물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왔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과 맞닥뜨렸다. 그날 나는 박물관 앞에 있는 동양문화 전문 서점에 들어가 한참동안 책들을 고르고 한국으로 부치도록 서류들을 꾸민 후 호텔로 향했다. 그런데 박물관을 같이 돌아보았던 딸이 내가 들렀던 서점 부근에 있는 또 다른 서점을 지목하며 만화책을 사 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딸은 초등학교생이었고, 나는 그 아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서점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내가 들렀던 서점의 유리창 안에 중국 도자기에 대한 분석연구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자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자기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가 내 머리 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맴돌고

있을 때 그 연구서를 발견하고 남편과 내가 느꼈던 기쁨과 놀라움은 지금도 머리 속에서 생생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얽힌 경험담과 내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와 정감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영국여행 전, 한국 도자기에 대한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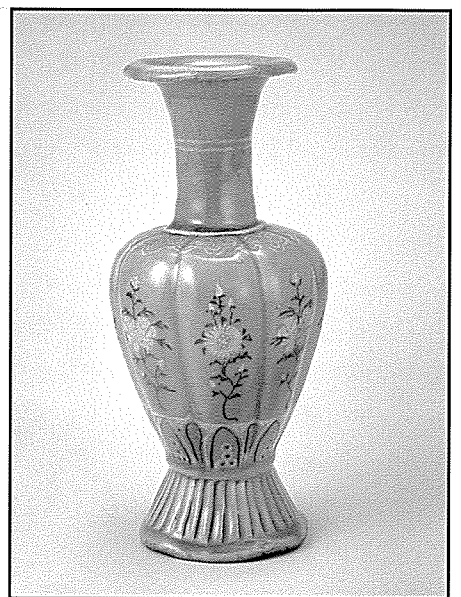
다. 밭과 산이 만나는 평범한 숲 속에 위치한 도편더미에서 나는 옛 도공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흙덩어리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옛 도공의 손금 자국을 보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그들과 공감하는 것을 느낀다”는 권 교수의 말에서 나는 도자기 연구가 바로 인간 연구라는 것을 배웠는지 모른다. 권 교수의 천재성과

일본 전통안료에 대한 분석연구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 선구적인 논문들을 쓴 그를 직접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매우 독특한 학자였다. 우리를 만나려고 일부러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도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막상 한 자리에 앉았을 때 자신의 지난 업적에 대해 어떠한 자랑이나 짐착도 늘어놓지



청자상감모란문항(고려) 국보 제98호 높이 20.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병(고려) 국보 제114호 높이 25.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내 연구에 귀중한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접할 수 있었다. 전통 도자기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한 영남대학교 권병탁 교수의 책이었다. 권 교수는 그 책에 전국의 도요지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 곳에서 발견되는 도편들을 양식별로 분류해 놓았다. 지금은 박물관과 발굴기관에서 도편들을 시료로 제공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편들을 구경도 못 해 보았을 때였다. 나는 가족과 함께 즉시 대구로 내려갔다. 그리고 권 교수의 안내를 받아서 여러 도요지를 방문하였

학문에 대한 열정에도 감동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도자기에 대한 독특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며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격려해주신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일본 나고야대학 화학과 교수였던 가츠오 야마사키와의 만남 역시 잊을 수 없다. 한국도자기의 성분분석 연구에 대한 초보적 결과들이 처음 출판되고 얼마 뒤 나와 남편은 그를 도쿄에서 만났다.

그는 팔십을 넘긴 나이에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분석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않았다. 그 뒤 그와는 여러 번 새로 출간된 논문을 주고받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내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지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의 멋진 만남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나에게 있어서 도자기 연구는 신명을 받칠 만한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도자기는 과거로 여행할 수 있는 통로이며 옛사람들의 흔적이 만져지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

글\_고경신 | 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